東亞日報

本紙六面

朝鮮人共和國 建設運動

一

近日의報道는우리에게勞農露西亞의對極東政策의再次强化함을傳한다 … 朝鮮人「쏘비엣트」共和國建設運動이 …

二

이러한露西亞의朝鮮人共和國建設運動은 …

三

在南北滿洲와露領에在留하는朝鮮人의大多數가 …

赤露와馮氏間 三百萬借款內容

赤露가革命資金으로交附하는同時革命指導者派送 指導者中朝鮮人도有

外蒙古에 赤軍勢力扶植

在留同胞도協力活動

芳澤駐中公使 短期賜暇歸國

中國經由 電報料改正

吳佩孚氏 關會續行努力

吳俊陞氏! 張家口에進軍

國軍二萬大兵對峙

浙江省租界外 在留外人에徵稅

在留日人對策講究

樞府本會議

外相對中策說明

上山氏承諾

總督更迭로

後藤長官辭表

首相은留任勸告

檀君論 (六九)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硏究

崔南善

六九 王險城神說의檢覈 (四)

實用飛行機 波國顯著發達

英佛債務整理案

英藏相의發布內容

東京市助役

丸山氏高級助役

朝鐵速成委員

首相에陳情

政友會對中國策

依然北中國侵略企圖

事業調査會

內相이三件諮問

水野次官辭任?

靑木次官問題로

市內局所 取扱小包郵便

勞農露國……勞働領事館을

爲先吉林에設置計劃 北京及東三省當局은拒絶

南洋貿易會議

議堂에開催

鐵道網調査班

全鮮四千哩今年中完成豫想

◇各地要望線名

朝鮮鐵道局 億二千萬圓計上

私鐵買收와延長計劃

豫算과無關係

買收法案提出

國有財産法과

縣種財産處分權

國鐵貨物 特定賃率追加

鮮牛繫留期間 變更運動徒勞

消息

橫說竪說

本舖는左記場所에서業務를擴張하는同時에原産地로부터多數買置하엿든各種紙物을秋期臨迫한此際에大廉價로提供하겟사오니一次試用하시옵

京城鍾路通一丁目六七

內外國各種紙物貿易部 卸賣 散賣業

合成紙物舖

夏秋 蠶種

蠶具、繭、生糸도販賣함니다

東亞蠶絲株式會社京城支店

夏의洋靴

洋靴는最理想的의優良品質、太昌獨特의安價提供 太昌號에限함니다

紳士靴 特價三圓 短靴九圓 編上六圓

洋靴製造商 太昌號

二十世紀 靑年日鮮唱歌集

發行所 光昔林

◆오!多情多恨한靑春들아!靑春의가슴을부글부글끌케하는이冊을!!보라!

보라!!

靑春의꽃동산

土産苧布賣出

韓山苧 保寧苧 白陽苧

土産苧布 通信販賣

忠南保寧郡熊川市

廣興商會

主任 吳炳九 吳現

ClibPDF - www.fastio.com

보는대로못듣는대로 생각나는대로 ◯◯◯ 忙中閑人

빗갈조흔개살구

◯동(◯洞)에서 ◯동(◯洞)으로 넘어오는 길가에는 구멍가가가 드문드문잇다。무섭귀 면문도 잇고 사탕부스러기면문도잇지만은 대개는잡종이다。그리고 썩마즌살구를 바려놋코 이런 애들의코무든돈을 빼앗는가가 도두군데나되다。두개나혹은 세개식모아노흔한무데기에 돈두푼이다。

◇

분홍색항라저삼반입고 아래를 벗은 어린아희가자가입헤서기웃가못한다。얼골은 검으테테하고 눈은크고 나히는여섯살이나되엿슴즉하다。주창라 저삼은 입엇서도 너머시원치못한집아희다。

「살구주세요」

하고어린애는 입에물고잇든 돈을 과자우에집어던진다。이윽고 어린애의입에는살구한개가들어간다。한바당에빨간흐레가 구름가치 피여진 어엿분살구나 어린애는고사하고 셋해서 보는내가먹어도맛잇게살구엿다。

◇

한참입속에너코 우물거리든어린애는웬세음인지 그커나란눈을검엇다떳다하며 손바닥에배앗한살구덩어리를 드려다본다。

「아이에비!」

하면서 눈물이그렁그렁한(아마너무어서그러든듯)눈으로살구를보다가,돌아안저 위하는 살구장사를본다。그리고 걱정서서웃는내얼골을 치여다보면서 이번에는다시나가

「이건 개살구야!」

하고 생가에외!집어던진다。

◇

빗갈조흔개살구는 이리하야길가에엎어젓다。사람의발과구루마바퀴가 수업시지나가는 길가에엎어젓다。

엇재서떠드는가

조선소년의얼골에다가 … 이란글자를새겨서 세운 … 희근비극이 허시모사건(許時模事件)에대하야 일본사람들이 평성하게떠든다。동경서는국민대회까지열게된다하며 상애회(相愛會)에서도 대활동으로북친주야한다고한다。노(怒)할때 노하고 웃(笑)을때웃음이 군자(君子)의도리이라 잘아는조선동무는 이제너그리운뜻으로 이분네를주라하는이때에 웨이렇게떠드는고? 정의(正義)와 인도(人道)를위해서 떠든다하면 참 고마운세상이다。이런케 정의와인도를사랑하는동무가 하나식들어가는세상을 하느님금어보소서! 그리하야 영원히영원히 정의와인도의세상이되게하소서! 그리하오면 정의와인도의 탈을쓴 악마는 영원히 업서질것이로소이다! 아―멘!

總督暗殺을計劃하고 巡査等四名을殺傷한 金虎門事件第一回公判

公判前의法廷內外

순종효황뎨(純宗孝皇帝)께서승하하신후조선의일반이심이모다비창한긔분에상처잇슬때에지난사월이십팔일 창덕궁금호문(金虎門)밧게서 일본인공작자좌등호차랑(佐藤虎次郞)을재등(齋藤)총독으로잘못알고 그외다자동차를습격하야 좌등을 중상식히는동시에동승자고산효행(高山孝行)을척살하고 또는 이뒤를따르는 순사두사람을중상식힌후 맛참내데포된데달부터한 종로범송학선(宋學先)이가 법률의심판(審判)을밧는날은왓다 작십오일경성디방법원대정호법뎡에는 일은아츰부터 자못긴장된빗을씌우고잇스며이에대한방텽객들은 구름가치 모혀들어법뎡안이붐븐그밧게서지사람의바다를일운엇창난광경이엿는데 그중에는 송학선의가족들을비롯하야 그의친구들도 적지안게 석기여잇섯스며또한이날방텽석에는 법학전문학교(法學專門學校)학생과 법정학교(法政學校)학생들외에총독부경무국에서까지 여러사람들이와서방텽을하고잇섯섯다

玉洋木上下衣에 泰然한宋學先

─警官警戒裡에親族은涕泣─

이날송학선은 서대문형무소 미결감에서 자긔의 운명이결뎡되는공판의날이 왓건마는 조금도 근심하는긔색이업시 평소와마찬가지로 밥한그릇을 다먹은후 태연한태도로 잇다가 아츰아홉시반쯤하야 감방에서 불니어나와 여러간수들의 엄중한 경계속에 수인자동차(囚人自動車)를타고 경성디방법원으로 와서는 곳재판소구치감(拘置監)으로드러갓다 그한편으로 종로경찰서에서는 정복경관 십수명을 출동시키어 법뎡내외 기타재판소마당근대군대에배치하고 엄중한경계를하고 잇섯스며또한 송학선의모친을 비롯하야그친척되는부녀들은송학선의 드러가잇는구치감담장밧게서서 눈물을흘리가며 아들의 나오는것을잠간만이라도또한번보랴고 기다리고서잇는데 오전열시 사십분쯤하야 구치감의 철문여는소리가「덜컹」하고나더니송학선은 여러명간수의 호위아래하얀옥양목바지저고리에검흔삿갓을쓰고(특히쇠수갑은 채이지안엇섯다) 법뎡에나타난다 다소소란스럽던 법뎡안은 갑작이정숙한긔분을씌우고조용하여지는데 피고의뒤를니어 변호사중 평양의한근조(韓根祖)씨는사정에의하야출석치못하고리인(李仁)송본(松本)량씨만출석하엿다

… 사범수선의공판을 하고 일단법뎡에서 나아가든 전촌(田村)재판장을비롯하야 강등(江藤)소야(小野)량배석판사 가등(加藤) 길야(吉野) 서긔등과 각각착석하자 뒤를니어리전(里田)차석검사가 입회를하매 이로써 송대변인송학선의 상관은 가장엄숙한공기가운데 열리엿다 먼저재판장은 피고송학선을 법단압흐로 불러세우고례에의하야 피고의 성명, 년령, 직업, 주소등을 무른바 피고는처음에는 … 나히는삼십일세라며 직업은 인부(人夫)이오 주소는경긔도 고양군연희면 아현북리(京畿道高陽郡延禧面阿峴北里)이십칠번디라고답변하엿다 련하야재판장은「피고인에게대하야 살인급살인미수(殺人及殺人未遂)피고사건의공판을 연다」는 선언을한후 립회검사로부터 긔소사실의랑독이잇고 다시 재판장으로부터 예심종결결뎡서(豫審終結決定書)를랑독하야 피고에게뎌려준후 틀림이업느냐뭇매 업다고답변하엿다 송학선은 계속하야 재판장의뭇는말에「지금와지처벌바든일은업고 교육은 일곱살때에 서대문 공립보통학교입학하얏지 단닌일이잇스며 종교는 밋는것이업고 열세살때에 집안이 리산되엿다가 일일곱살때에 시내현인동(人然洞)에 집안이다시모혀살엇스며 이징…

匕首出處

때는정히 오전열한시 그보다조오년부터 남대문통 … 에 고용되여잇다가 동십일년에 시병으로 해고되엿는데 지금으로부터 약사년전에 련인동에서 친긔아현북리로 이사하엿고 금년삼월에 남대문통삼뎡목 경성사진관에 고용되여잇다가 그집부엌에서 서양칼을 가지고와노라는등의 말을 답변한후 이로써범죄사실에 대한문답(問答)이 시작되엿다

事實審問

犯行動機陳述

재판장은 증거품으로 압수된그날카로운칼을 드러피고에게 보이며 그칼이 이것인가 하고무르니 틀림업다고 답변하엿다 련하야 재판장은

문 칼은 무슨목뎍으로 가지고갓는가

답 내가언제강도질을하엿소?

문 그러면 무엇하랴고 가지고갓섯는가

답 창덕궁 압헤서든가 어데서든지총독을 암살할 목뎍으로 가지고왓섯소

문 총독을언제본일이잇섯든가

답 덩거장(경성역)에서한번보앗섯소

문 피고는처음예심에서는그칼을강도질할목뎍으로가지고왓다고말하지안엇는가

답 그런말한일업소내가밥을굶소?왜강도질을하겟소

문 이칼은피고가 … 갈앗는가

답 그럿소

문 언제갈앗는가

답 그때로부터한달전에 갈엇섯소

문 무엇하랴고갈앗는가

답 총독을 살해할목뎍으로 갈앗소

문 금년사월이십팔일낫에창덕궁금호문밧게 갓든일이 잇섯는가

답 잇소

문 무엇하러갓섯는가

답 총독을 암살할목뎍으로 갓섯소

문 그날도 이칼을가지고 갓섯는가

답 그날은안가지고갓섯소

문 그러면 그날은 무엇하러갓던고

답 망보하러갓섯소

문 그러면 첫날은총독을 암살할목뎍이아니엇든것이아니냐고무르니 피고는 다시말을번복하야 첫날은총독을 암살할목뎍이 안이엇다고답변하얏다

檢事死刑求刑

별항가치 잠간휴게를 하엿다가 오후두시반경에 다시개뎡하고 리전검사로부터 가장엄숙한 목소래로 사형을구형하엿는데 피고는사형이라는말에도 이미 각오하고잇섯든듯이 태연한태도로 안자잇섯스며 그로부터 변호사의 변론이시작되엿다(오후두시사십분경)

◇사진은법뎡에선송학선

문 사월이십칠일오후한시경에 칼을가지고두번재금호문밧게 갓섯는가

답 그랫소

문 그날은총독을암살하려갓섯든가

답 틀림업소

문 총독암살을결심한날은어느날부터인가

답 그전부터 그런생각이잇기는잇섯스나결심을하기는 그날이오

문 첫날순사에게모욕을당하고 분해서 강도질하는것보다 찰하리총독을살해하고 자긔도 죽겟다고 그때부터(순사에게모욕당한) 암살을결심하엿다고예심에서답변하지안엇는가

답 그런듯하오

문 그러면처음칼을집어올때에는강도질할목뎍이아니엇든가

답 그랫소

詳細한犯行顚末

듯기도섬직한당시의광경

문 그날흉행광경을 자세히 말하여보라

답 (이때에피고는 머리를긁우로기웃거리며) 그날자동차가 금호문을 나와서 파출소부근싸지갓다가 다시 도라오는것을기다리고 잇노라니 자동차가잠간머물기에 곳차에뛰여올라서먼저가운데안즌사람을 찔르닛가그압헤안젓든사람이손을늘이며 나려서기에 또다시왼편저드랑이를찔럿소

문 가운데사람을찔른것은총독으로알엇는가

답 그랫소

문 엇더케해서 총독으로알엇는가

답 엽헤섯든사람들이 그가총독이라고수군거리는소리를귀결에듯고알엇소

문 피고는총독을본일이잇서잘알터인데웬말이냐

답 그래도자세히모르오

문 가운데사람은총독인줄알고 찔럿거니와그압에안즌사람은 왜찔럿는가

답 나의일에방해하닛가찔럿소

문 그사람도죽일목뎍이엇든가

답 그런생각까지는할여디도업시달려드닛가 귀치안어서 찔럿소

문 그후다라나기는왜햇는가

답 잡히지안으랴고다라낫소

문 자동차에서뛰여나려도망가서엇더케햇는가

답 순사가 붓들기에 칼질을하며 서로싸웟소

문 그순사가 피고를 붓들때에 잡히지안으랴고 찔럿지 어데를 찔럿는가

답 팔(腕)인지 자세히 긔억이 아니나오

문 그후 긔마순사가 쫏차오는것을 듣고 피고는돌을던지어 그순사의 칼친손을맛쳐서칼을떨어트리게하엿지

답 그랫소

문 그때그순사의칼은오른손에들고 양도는왼손에들고 칼을좌우로두르며 헌병과 순사들이잡으러 달려드는것을 방어하엿지

답 그랫소

문 휘문고등보통학교압헤서 피고가 너머질때에 말타고온순사가 피고를덥치는것을 가진칼로그순사를 찔럿지

답 순사가하도여러사람이달려들어서누구이엇는지는 알수업소 … 칼로친일은잇소

문 모다죽이고다라나랴는생각으로 데포하랴는순사와헌병들을 죽이랴한것이 안이엇든가

답 죽이는것까지는모르지만좌우간다라날랴고그리햇소

문 그러나예심에서는순사도살해할맘이잇섯다고하지안엇든가

답 그런말한일엄소

安重根을崇拜

잘난사람이라고생각하오

대개 위와가튼답변이잇슨후재판장은또계속하야

문 일한합방이래피고는총독정치에불만을품고총독암살을목뎍하엿다고검사국에서말한것은엇진말인가

답 그런생각은어렷슬때동모들끼리의론한일은잇소

문 피고는공산주의나사회주의자는안인가

답 안이오

문 피고는전일안중근(安重根)이가이등박문(伊藤博文)을암살하엿슬때에 안중근의 사진을 … 에서엇어보고 엇더한생각을햇는가

답 그때여러동무들과가치 그의사진을보고 그가잘난사람이라고생각햇소

그후로도 재판장으로부터 피고가총독을 암살하랴한 동긔에 대하야 여러말을무르매 피고는생활이곤난하야 살기가 어려워서 여러가지로생각하다가 그와가튼것을 결심하엿다는 의미의애매한답변으로 재판장의 심문은 끗이나게되야 잠간휴게하얏다

新義州署員入京活動 事件은內寅義勇隊關係?

─신의주서형사두명이입경하야활동 내용은병인의용대원의관계사건?─

三名을檢擧하야鍾路署에留置取調

재작십사일에 시내 종로경찰서에는신의주(新義州)경찰서로부터형사두사람이 출장하야 와서 동서고등계의 응원을 어더가지고시내 모모처에서 양복입은청년두사람과 조선옷입은 약오십세가량의 남자한사람을 검거하야그날오후에 곳 신의주형사들이 종로서이층에서 대략한취조를하고는 즉시 동서류치장에 류치를식히고 그이튼날인 작십오일에도 역시활동을 개시하야 모방면을 수색한후 그날밤차로는그젼날 검거한전긔 세사람을 압송하여가지고 신의주로 도라갓는데 사건내용에 대하야는 절대비밀에부치어용이히 그내용을알수가업스나 얼마전상해(上海)에서일본총령사관경찰서에 검거되야 신의주디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되여온 병인의용대(丙寅義勇隊)고준택(高峻澤)외한명의관계련루자로 그들이 처음조선에 드러오랴고 계획할때에 경성에잇는 동지에게미리 그뜻을통지하야 내외가 서로 련락을취하고잇다가 그들이신의주 검사국에 넘어와서취조를밧는때에 그사실을자백하엿슴으로 검사국에서는 곳경찰서에 명령하야 그와가치경성에온 동지사람들을 검거하는것인듯이추측되더라

東小門犯人도 丙寅義勇隊員

부보=동소문(東小門)파출소습격사건의 범인을상대로 동대문서를비롯하야 시내각서의 수색대는 수일래로 불철주야하고 범인을 수색하엿스나 아즉뎌확한단서를엇지못하고동대문서에서는 수색의범위를넓히여 시외디방으로신당(神堂)사촌(寺村)등을 특히주목하야 수색중이나 그일이니러날때에피해자는겁을집어먹고 범인의인상도 살피지못한관계로 범인의인상(人相)조차미상하든바 십사일에 신의주서(新義州署)의모근(茅根)경부보가상경한이후로부터는동소문사건에도 수색상 일조의광명이 비치어든모양인데 십오일 오후두시부터 긔괴모근경부보를 중심으로동대문서에서고등(高等)사법(司法)계의주임들이 모히여 수색에대한 여러가지방침을 협의하엿다는데 이것으로 추측하여보면 동소문파출소를 습격한범인이혹은 신의주서에서 잡고저하는병인의용대원(丙寅義勇隊員)인지도 모른다더라

重大使命으로入京한 吉林組金尙模

각서가잡고저애쓰는사람

별항과가치 신의주경찰서 모근경부보(茅根警部補)와평북도경찰부박경부(朴警部)가시내종로서의 응원을 어어병인의용단원의 관계범인인듯한 세명을류치하고 취조를하는중 그들관계자중에는 길림조(吉林組)에잇는 김상모(金尙模)를 잡으려고애를쓰는것이라는데 권긔 김상모는 얼마전에 모중대사명을띄고 국경을넘어 경성시내로 강입하야 내외가서로 연락을취하야가지고 무슨계획을실행하려고 하든사람이라하며 이사람을 데포하면 동소문파출소 습격범도알게될는지모르리라더라

三角山넘어 水色으로逃走?

파출소습격범

동소문(東小門)파출소습격사건으로인하야 시내에서수색을하여오든중재작십사일 새벽에 동서소속 구파발(舊把撥)주재소로부터동소문사건의범인과가튼 청년이 삼각산(三角山)을넘어수색(水色)방면으로 다라난증적이잇다는보고를듯고 곳사복형사(私服刑事)고등계주임이하 주국목으로 변장한형사대가 시외모모방면에서 인히권문학교 학생들의 숙소를수색하는동시에 십오일새벽에도 친긔구파발 주재소를중심으로 수색방면으로 활동을계속중이라는데 동소문사건의범인이 시내에서 드러오는처하고다시 시외로 다시싸지여삼각산(三角山)을넘어간다하면 디리상으로보아수색방면으로활동한다더라

關係嫌疑者 五名引致取調

◇아직진범은잡지못해 疑問의拳銃事件後報

작지소보=시내와룡동(臥龍洞)에서 권총네자루와탄환일백오십여발이 압수된사건에 대하야 종로경찰서고등계에서는 그동안 범인수색에 대활동을계속하여온결과 그권총을 감초아두엇든집주인리모(李某)(二○)외 동거인리모(李某)(二○)외 충남론산군강경(論山郡江景)에원적을둔 청년과로안등네사람을 검거하고 목하동서 대산(大森)형사의손으로 엄숙한 취조를계속하는중인데 아즉그권총을 처음가지고왓든사람은 잡지못하엿스나 권긔다섯사람은 모다그권총을 가지고 무엇에사용하랴고 감초아가지고잇든 사실만은명백히드러낫슴으로 지금은 그권총을 엇더한일에 쓰랴고해엿든가를 엄중히 취조하는모양이나 이에대하야는 모다입을담고 전대로 말하지안음으로 그내용을알기가 자못곤난하다는데 취조가 대략씃이나는대로 멧출뒤에는 그 증거품들과함께 권긔 다섯사람을 검사국으로 넘기게될모양이더라

災後一年 洛東江沿岸 (三)

主人은而今安在? 頹落한一間草屋

─군대군대싸이모래는작년이때의사태난흔적 금년농사는날씨만조흐면풍년이될듯하다고─

水陸巡訪第一隊 三浪津서 洛江漁夫

◇

모심은 너사무리를 오른뒤에두고 남쪽을향하야물밧이지 길인지모르는데로 수백보를나려가다가「모무라」나무가 울창한 마을하나가나섯스니 그곳이내가보랴든류두(柳頭)이다 류두와산라(…)은 따로떠러진섬은아니다 그곳은인구가삼백여명으로 지난수해에대략십삼사만원의손해가잇섯다한다 디형이삼랑진보다 나즌사람이지 밋려드러온모래부터이가 더하다

그곳도대너살라가치 복구가되여잇스며 수새로밤비압아죽은사람도업다 논천반은 이미이송하며 조번기의배는곳도잇고 천반은방금모를시는나 지금십어도뉘낫시만 순조로가면 풍년이될티이라한다 그곳도다행히수새로 류리된 동포는업다 섭섭섭섭히두니 밧두덕길로백여보를서려나가 강언덕을당도하가 마음기달리주든사공이반갑게 나를마지맥도(麥島)로향하나

◇

바다에서 오래동안 생활한배사공의경험담을듯는것도 자미이나 언제든지비가만히올다면 아닌밤중에 사공부르는소리가난다고한다 엇그러치요 백발백중이지요하며 더벅수염을헤날린다 맥도에오르니 나를나려다준사공은 부산(釜山)으로가겟다하며 얼마되지안는돈을어더가지고 재삼고개를쉬덕이며 배에돗을놉히달고 남편으로나려가나 맥도(麥島)는원래

麥島에살면서도 麥粥一器가困難

─보리섬에살면서도보리죽이업다 벼락산등진덕포의그림가튼풍광─

麥島의困窮과德浦의風光

보리가만히나든곳임으로 맥도라하엿다 인구가칠백이오 다방이상당히넓다 물푸는긔계가 발달된후로 차차논을치기시작하며 지금은나진곳에는 거의모다논이다 그래도보리의생산이데일만타는데 금년보리농사에실패하야 녀름살이가큰걱정이라한다 대뎌,삼락,류두등각섬보다도 데일곤난한모양이다 반길이나자란 콩밧엽길을따러가니 나자란 공밧엽길을 … 치고 … 이다 수재맛난그대로 잇는모양이다

다시남쪽을향하야 얼마를거려가니 수삼가옥되는촌락하나가잇다 울타리밋헤는물에밀려든흰모래가 수북수북하게싸혀잇스며 침수된흔적이집집마다 오히려남어잇다 한집을차저드니 방금덥십을먹든때이다 주인이나를보더니 행혀무슨세금이나바드러온 사람인줄알엇든지 … 에실분지구는 무슨남을이오십분지일가량은보리로된 밥을먹고 … 고깃다그나마부족하든지 커 …

에실패하야 녀름살이가큰걱정 … 밥먹든숫가락을놋코 황황급급히이러나아즉은 할수업다는듯 … 을말한다관리아닌것을 말하니 마음을놋코 니마에흐르는땀을 씨스며쇠무량당배시대로 담배한대를권한다식구는여섯 …

밥입즉하기를약조하고 다각각 논으로 밧으로나아간다 보리섬(麥島)에서 보리도넉넉히못먹는그들의생활은 아즉도고생할날이남엇다 일반뎍으로보아도섬가운데서 데일곤란하다

어던너자의안내로 나루ㅅ배를타니그곳이덕포(德浦)라 이재민이구조하나건네고또하나를 타니그곳은 벼락산(霹靂山)을안ㅅ고두르고 … 강물을지내니 보기만하여도시원한놉드란한 바우츠이 강돌에 압흐로 …섬가운데 흐르고 뒤로는충암절벽으로된 산이잇다 … 는그들의 … 노탁하야보이는광경은 완연히산수화폭(山水畵幅)이다。

◇

紫翠…降仙臺、德浦風光…飛去又飛來。我鷗白鳥不知塵世事、雙雙…

午砲노타重傷 군산부

청포수(群山府號砲手)일본인외천미(外川鐵彌)(…)는지난십사일정오두시에오포를(午砲)노타가화약가루(火藥粉)가면부에백여주상을당하여지금군산자혜의원에입원치료중이라는데경노생명에는관게가업나더라(군산)

新義州共産黨事件의關係被疑者二十一人은昨十五日夜에京城地方法院으로押送되여왓다더라

淋疾梅毒의中國療法

淋疾의名藥? 梅毒의諸症?

中國安東縣四番通六丁目四番地 華興號 啓

中種壹組參圓 乙種壹組貳圓九拾錢

東華理髮器會社特製品大正新賣出

十二種壹組

東華理髮器會社 總代理店 大正商會

모기장

모기장특가제공 망사문장

一人用 二圓六十錢
二人用 三圓
三人用 三圓五十錢
四人用 四圓
五人用 四圓三十錢
六人用 四圓九十錢
唐紗紗 八圓

(但열개이상청구하시면오분할인함)

京城府鍾路 製造販賣 庸德商店

登錄商標 六合商會 고리표고무

開城 京城 白菜種子 販賣

朝鮮開城 興林農園販賣部 特價表無代進呈

미국가는세언니

박인덕녀사

배화녀사교동보통학교와녀자시학교에서 오래동안 교편을 잡고잇던 박인덕(朴仁德)녀사는 도라오는 이십일에 다년간숙망이던 미국유학의 길을떠나 쏘지아주메콘시(市)외슬니안대학으로 가게되엿슴니다 녀사는 김운호(金雲鎬)씨의부인이오 두아희의 어머니오 칠십이되신 홀어머니의 외따님이십니다 녀사가이 참아떠나지못할사랑하는남편 사랑하는두따님들과 어머님을떠나 수만리에 엽는 도리오지못할길을밟게된것은 녀사의마음가운데 『조선녀자사회를위하여 좀더잘배운일군이되여보자』하는 결심이 얼마나집흔것을 능히상상할수가잇슴니다

박인덕씨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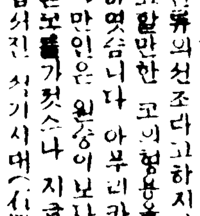
미국유학은 벌서오래전부터 계획하엿던것이올시다 남편은일본으로 공부를가게되엿고 두어린아희는 시어머니께 서맛하기로시게 되엿슴니다 남편과 어린아희들을떠나가는 것이 매우섭섭하나 삼사년의세월이란 잠간지내가리라고밋고 그때에는만흔희망과리상으로 가득찬새봉사(新生)의생활이 우리를마즐것이니 나는 오직김분그미래를생각하고 현재의떠나는섭섭을이즈려합니다 (사진은박인덕녀사)

리인애양

밝지이리화학당을 졸업하고다년간상동녕여ㅅ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잇다가 주국남경(南京)에 건너가오래동안 유학한 리인애(李仁愛)양은 오래전부터 미국유학의길을 떠나고저 려행권시청중이엇섯는데 금번에려행권이무사히 나왓슴으로 비인니와쥬신명양씨와 동행으로금십팔일에경성역을 떠나게되엿슴니다 인애양도 삼십이넘으신 량친외외따님으로 떠나기어려운몸이라고합니다 조선녀자들이 이와가치 장래의희망과리상을위하여 청년십과용기를가지는것은 상래의 녀자계를위하여 크게하례할만한일이올시다 (사진은리인애양)

윤성덕양

리화를졸업하고 리화에서음악을교수하든윤성덕(尹聖德)양은 음악을 더욱 연구하여보려고 약사개년동안 잇슬예 명으로 미국관사스시에잇는 [illegible]학교를졸업하아 십자 일아슴에 경성에서떠난답니다 양외에이번길은 조선녀자교육을위하야 적부터 회넘되어오는 『[illegible]대학』으로 가는것인바 그장학금의삼백원 일년에 미화오백불(약천원)이오그것으로보낸다는것이 이번윤양이처음이라합니다 윤양은 발표한과사에게상의 고방석한음성으로 이가치말하엿다 나는 본래음악을조아하고 더욱이음악가가되겟다는것을 늘서원하엿다 조선사람으로는 새조선만세지마는 너무나음악에대한새조선을 가만든생각하고 다시 학교에서녀학생들에게 음악을가르치는데 버리와주면 차라리 외선생도취미가지이납니다 내가리화에서대학을졸업한이래로 사년동안을 리화에서 음악을 가르쳐오것만 사년간 어느새갓는가하리만치 재미가잇섯습니다 이번에가면 피아노를 정과로하게되고 그밧게 성악을 배울터인데 도라와서도 역시음악교육에 종사하고저하며 나자신의일음이나날리게나는생각은업습니다 아직도 조선의음악계는유치하여서 음악회에가보면 음악보다는 사람의취미[illegible]



부인과학

영웅과코 문명인일사록 코가크고놉다

인류의력사를통합하여보건대 고래로일세를 놉비든영웅처노코 코가납작한사람이업슴니다 인류의선조라고하지마는 코라고할만한 코의형용을이루지못하엿슴니다 아만인은 원숭이보다는다소곰 업서진 석기시대(石器時代)의 사람들을보나 코가썩쉬습니다이 것은 석기시대의사람들은비록 유치하엿스나 아만인이아니인것을증명하는것입니다

◇

그러나아만인이나석기시대에 원시인(原始人)은 현대우수한 문명인종에 비하야지혜가부족하고 어리석엇슴으로그들의코는낫고 모양이흉하며현대사람의코와가치 놉고코ㅅ날이서고 코밋이 수평선으로고든코를그들사이에는 차저볼수가업섯든 것이올시다

◇

그와가치아름다운코는반드시 우수한인종 문명한인종이라는 인종인데 이지프트인종,로마인종,희랍인종,이모다여긔속한것이올시다 이러케지해잇고 일즉이 문명한이종가운데도그 인종들 지배하는유명한인물들은뛰여나게코가 놉핫든것을력사와그림이증명합니다

◇

이것을증명한이는미국『우드』박사인데 박사외여긔대한강연은미국 유선학잡지에낫는데박사의논범은 결단코회실치아니한상상에서나온것이 아니엿슴니다 박사는고래로대인들의조상을수하고 현대의사진을모하 그것을 조리더으로연구한것입니다 판만아니라 자긔호사독단적판단을피하기위하야 조수를두고코외새조와를 비교하여여러개의표본을만들엇다고한니다

◇

그리하야연구하여본결과력사상에 나타난큰인물은모다코가 길거나 큰사람이엿다고합니다 그리고사회의진보가 나스면나슬수록 코가커지는것을발견할수잇다고합니다 녀자의코가너모 큰것을밉다가 세다하고보기실허하지마는 력사상에나타난유명한녀자들은 모다코가놉핫스며임새의 유명하엿든『크리오파트라』는긴코큰코를가젓다고합니다

◇

코의대소와두뇌의석용과부는 밀접한관계가잇는지 그것은오는날알수업는것이지마는 엇더케든지 력사상유명하엿든이들

신랑신부

전남려수(麗水)출신(新郞)청년이오 로준(盧俊)군과 개성호수돈녀자보통학교(開城好壽敦女普校)교원으로잇는리혜경(李惠卿)양의 결혼식은 금십팔일오후여덟시에 개성중앙례배당에서 오화영(吳華英)목사의 주례하에 거행하엿다고합니다 (사진은신랑신부)

가명고문

마음가운데괴롭은가지신이해결치못할사정을가지신부인네들을위하여이란을해방합니다 『동아일보가뎡란』으로될수잇는대로간단하게투서해주십시오원홍은익명으로하시도조슴니다

청본갓혼이와살가

(문) 저는이십구세된과부인데 수삼년동안을두고 사랑이깁허 서로떠날수업는 남자가잇는칭(?)려나혼수는아니되오니 살아도 인륜과법률에 관계업슬가요 (재동다담녀성)

(답) 성파본이갓더래도촌수만 업스면 관계치아닐가합니다사랑이깁고떠날수 업스면혼인하시요(긔자)

자식업는이큰마누라게로

(문) 저는이십일세된녀자인데 십팔세에 엇던사람의첩이되어 아희를나핫스나 자식은큰마누라에게로 빈처에되엿습니다나는자식을나코도 자식업는사람이되오니 엇더케하면빈처에내자식으로맘드가요? (김성녀)

(답) 아희를서자로만들면당신사이에낫다는것을 미처에올닐수잇슴니다 그러나저엽는어린아희를서자라는 일홈을못치는것은아희가너무가엽지 아니할가요!(긔자)

미욱한염소

동화 마년수

가마귀를따러가든 어호가울 불속에빠지엇습니다 뭅은일마 십지도안이지마는 나올수는업섯습니다 애를쓰나못해 불속에 허리를잠그고 안저 쌩쌩업키만 하엿습니다

그때는새에 맛슴 울불바그로 『조흔나?』

맛습니다 그만을보고 잇스하야 나행히 차저다니는 주인의구원을바덧습니다

염소가지내가니다 곱은물히고 송곳가튼 뿔이 아주엄친하고생김생김이 제법영민하야보힙니다 틈내려쉬여나 물끄러미보고이상한생각이나서 『애니거게서 무엇하나』하고물엇슴니다 여호는 『바ㅅ우스면서 『여개서살기쉬운』이다 애엇더케더오지 이속에드 러와안스나 빙긔가치 시원하고나 래수가어더케 시원한지모르 겟다』하며 흔들거리고업서나 다

염소는더욱남이러복이산득맙서 곱어죽을디경에 빠지엇다가 여호에게속은염소는불속에 썩어죽고 잇슴니다

부인시사일속

왜관부인야학

경북왜관청년회(倭館靑年會)에서는 글을아지 못하는부인네들을위하여오는 십오일부터 동회관에서 부인야학회를개최한다는데 년령은 십오세이상부인이라야 한다고 합니다

집일흔아이

▲녀자다섯살가량 얼굴은조곰길고머리는 좁크고 머리는깍것스며성명은 알수업고 옷은흰모시 저삼에검은 무명치마에고무신을 신엇는데 지난십

도적에게강간

(문) 저는 이십오세된녀자입니다 엇던날집에아모도업는사이에도적이드러와 저는강약부동으로 그놈에게강간을당햇슴니다 남편이그것을안후부터저를 실혀하고 나가라고합니다 생명을끈흘가요 엇지하면조흘가요 (충남R녀)

(답) 참으로억한일입니다 남편의마음이 돌리기를솜더기다려보시요 만일청히아니돌리거던그의말대로 남편의집에서나오시는수밧게업지오 그리고당신의과거를잘말고도 사랑해줄남편에게 시집을가십시오 (긔자)

민적에업서도위자료를 칭구할수잇슬가

(문) 나는 개성사는이십세된부녀이온데 팔년전에시집을가서살앗는데 자년에시집에서쫏차보내니다 그런데저는그동안년령불고급년에비밀히 장가갓다고합니다 금으로 민적을아니하엿는데요지금위자료를 칭할수잇슬가요? (개성Ⅲ)

(답) 당신이 민적을하여달라고졸라도아니하여주엇고 그중거가충분하면 소송할개로가됩니다 (긔자)

아희가동런을먹엇서

(문) 금년십일세된아들이삼년전에일헌자리 굴근동전을삼켯는데지금까지 아모탈은업스나 마음이노히지안슴니다 지금이라도엇더케하면 조와요 (시내일부인)

(답) 반다시똥에나오는데엇재서아니나왓는지 모르겟슴니다 아즉아모탈이 업거든그냥내버려두는것이 관계치안치마는정 념녀되시거든 총독부의원이나 제중원에가서 액쓰광선을빗추어돈이어데잇나를 차저보시는것이조켓지요(긔자)

아희가밤에갑작울어

(문) 여섯살된어린놈이 부터밤이면 뻐뻐로자다가갑작히울면서 이러나안고 안고함니다 이것이 무슨병일가요(당호원빌주부)

(답) 어린아희의원신이 허약한사닭입니다 아모조록아희를 하로종일조용하게 울니지말고 피곤하지 안케길느십시요 (긔자)

文藝

國風譯抄 (五) 中國古民謠

梁柱東

그대의옷깃

파릇파릇한것은 그대의옷깃 길고긴생각은 내마음이라 이몸은녀자의몸 못가네만은 그대조차어인일로 긔별업는가

파릇파릇한것은 그대의패물 길고간마음은 내생각이라 이몸은녀자의몸 못가네만은 그대조차어인일로 오지안는가

하로가석달가치 지리하여라 아!하로를보지못해도 바로저성안에 계시것만은 암들하고살들한 우리그님은

青青子衿 悠悠我心 縱我不往 子寧不嗣音

青青子佩 悠悠我思 縱我不往 子寧不來

挑兮達兮 在城闕兮 一日不見 如三月兮

(鄭風、子衿)

치마것고

그대가 내생각을 하여주면은 치마것고 진(溱)수라도 건너가리만 그대가내생각을 아니하면은 세상에다른님이 또는업스랴 아!참밋친녀석 다보것네

그대가 내생각을하여주면은 치마것고 유(洧)수라도 건너가라만 그대가내생각을 아니하면은 세상에 다른총각 또는업스랴 아!참밋친녀석다보겟네

子惠思我 褰裳涉溱 子不我思 豈無他人 狂童之狂也且

子惠思我 褰裳涉洧 子不我思 豈無他士 狂童之狂也且

(鄭風、褰裳)

동문을나서

저긔저동편문을 나아가보니 아름다운계집이 구름갓터라 아모리계집이 구름갓허도 이나의마음은 계집아니니 흰옷입고수건쓴 내사람만이 애오라지내마음을즐겁히도다

저긔저성밧게를 나아가보니 아름다운계집이 쎄가갓허라 아모리계집이 쎄가갓허도 이나의생각은 계집아니니 검은치마흰옷입은내사람만이 더부러평생을 즐기리로다

出其東門 有女如雲 雖則如雲 匪我思存 縞衣綦巾 聊樂我員

出其闉闍 有女如荼 雖則如荼 匪我思且 縞衣茹藘 聊可與娛

(鄭風、出其東門)

詩

夕陽에먼길을 써낫드러니

異河潤

夕陽에먼길을 써낫드러니
속절업는하로는 쉬가치가서
고달흔내몸을 쉬일가하야
山으로숲속으로 차저드러도

청컴한밤중을 재촉할째에
먼산에얽박이는 적은불하나
가삽을조이며 따려갓더니
하로밤을나에게 허락햇서도

이혼날그네는 간곳이업고
찬비에모진바람 가로지나며
우리와번개가 울고빗나서
그때부터이몸은 울고다닌다

그때부터이몸은 외로워지서
웃업시天地에 떠돌고잇다

보느냐

端川 金龍三

놈들아!
보느냐
만흔무리가
하로 두차례의
굴뚝의煙氣를내이지못하야
饑餓不足으로—
파릿하고 햇쑥한얼골에
주린창자를 움켜쥐것을
놈들아!
보느냐
만흔무리가
늙은이를 못듣고
어린어를 잇으러
지고이고
南으로 玄海를건느고
北으로 豆滿江
西으로 鴨綠江
南北滿洲에서
彷徨하는것을
眞이 엄고
慮가 眞인놈들!
慮가一生涯의唯一한길이요
道德이요
禮儀요
秩序인 놈들아
놈들아!
正道에는 ○○이잇고
○○은○○을 낫는다
不合理는 合理를
不自由는 自由를
不平等은 平等을
要求한다 要求한다
이것이
머지안은將來에
다닥처오는必然한理勢이다

自歎

일엽

無情한 님이어니
생각한들 무삼하리
찰아리 남들에게
님향한情 옴기려햇네
쎄느즌 이제님의맘아니
가슴압하 하노라

◇

못맛날 님이여든
그대로 언제까지
無情한 님으로나
가슴속에 무더두고
한세상 되여나가는데로
그럭저럭 지냅전—

全朝鮮女子少年壯年庭球大會

場所	大邱府三笠町庭球코―트
期日	全鮮女子庭球豫選及決勝戰 七月二十二日
同	少年庭球豫選戰 七月二十三日
同	壯年庭球豫選戰 七月二十四日
同	少年壯年決勝戰 七月二十五日
競技方法	在來式
申請期限	七月二十日까지本會에
少年團資格	但壯年團은加入金三圓을要함 小學生又는身長五尺一寸 年齡十八歲未滿者
主催	大邱運動協會
後援	東亞、時代、朝鮮三支局

皮膚病 尿病 花柳病
醫學博士 渡邊晋
午前九時부터十二時半 午後三時부터六時半 日曜祭日은三時半부터
京城黃金町二丁目 電話本局八九四

新案品 好評嘖嘖!! 實用理髮器
使用輕便 堅牢無比 價格至廉
美裝函入 附屬品 八種添付
壹號組合品四圓也 貳號組合品參圓五拾錢 參號組合品參圓也
日本理髮器具會社朝鮮總代理店
理髮器具製造販賣業
京城鍾路二丁目 長尾金寶堂 電話光化門四四五番 振替京城一七〇一番

淺田飴 團形
咽喉를부드럽게하고 音聲을조케함
定價 三十錢・五十錢・一圓 全國各藥店에잇소
家庭用淺田飴
東京・大阪 堀内伊太郎

紳士淑女의 最新式煉香油

インターナショナル石油発動機
農林省比較審査 甲級第一位 優秀第一位 於各地展覽會金牌受領
馬力 一・二・三・六・十
みのくち式A1型渦卷ポンプ
日本總代理店 泰明商會 京城出張所

地方論壇

兩大會를압두고

宣川 一記者

來二十七日 二十八日間에宣川을中心으로하고 두가지큰모임이열니려한다 하나는關西記者大會요 하나는全朝鮮庭球運動家의競技的試合이그것이다 [illegible]

去十日現在水稻移植狀況

廿日까지는完了狀態

七月十日現在水稻移植面積은 [illegible]

清津에無電局

今年來로設置豫算

近時船舶에無線電信設置는漁船에까지及하여이것이海陸連絡上 [illegible]

金泉金組事件

證據品을調査

金泉署에서

金泉金融組合理事河村利舍가 [illegible]

救濟金分配件을

郡聯盟에質問

同志를糾合하야中央에抗議하고輿論에訴하겟다고

蔚山中南青年團에서

[illegible]

自家用廢止後

燒酒會社設立

開城有志들이

[illegible]

新友會로改稱

大邱青年團에서

[illegible]

栽寧勞友會創立

去十二日總會開催

黃海道栽寧郡內는內外物產集散의都會로 [illegible]

金讚淳氏檢束

[illegible]

巡廻探訪 (十五)

‖益山地方大觀(2)‖

裡里 一記者

宗教界

本郡의宗教界를 [illegible]

社會團體

本郡의一般民衆運動은 [illegible]

◇民衆運動者同盟 [illegible]

◇裡金青年會 [illegible]

◇自成組合 [illegible]

◇丙寅知友會 [illegible]

◇自由勞働者同盟 [illegible]

◇益山勞働聯盟 [illegible]

膺懲

[illegible]

迎日青聯委員會

[illegible]

數英夏期講習

咸興基青에서

[illegible]

支拂

[illegible]

宣傳

[illegible]

契約不履行으로

學校維持困難

土地賣買에金氏의行爲

[illegible]

組合費를免除

森林畜產兩組에서

[illegible]

白畓이四萬餘斗

論山郡의旱災狀況

[illegible]

興德軍이優務

南朝鮮庭球大會

[illegible]

暴行後結局被訴

◇利原東拓駐在員

[illegible]

教育獎勵會定總

[illegible]

水道時間制限

旱災로因하야

[illegible]

咸南記者大會

咸興에서開催

[illegible]

傳習所生盟休

先生辭職問題로

[illegible]

城頭市場復興코저

郡當局에陳情

市場基地問題로써

[illegible]

兩氏滿期出獄

[illegible]

平南道廳의

部課長會議

[illegible]

盟休解決

禮山農校事件

[illegible]

价川에庭球會

[illegible]

金泉夜市開始

[illegible]

東北地方

[illegible]

嶺南地方

[illegible]

關西地方

[illegible]

海西地方

[illegible]

畿湖地方

[illegible]

地方人事消息

[illegible]

南朝鮮蹴球大會

◇日時 八月九日十日兩日間(雨天順延)
◇場所 馬山俱樂部運動場
◇申請期日 八月八日正午까지
◇申請場所 馬山府休町時代日報馬山支局
◇抽籤 八月八日午後八時
◇參加金 每團에五圓
◇賞品 優勝 [illegible]
◇規程 [illegible]
◇選手 十一人 後補二人
◇主催 在日本馬山留學生親睦會
◇後援 朝鮮、時代、東亞三馬山支局

關西記者團第二回大會

日時 七月二十七日午後一時로 七月二十八日午後六時까지
場所 平北宣川 [illegible]
參加 [illegible]
申請 [illegible]
注意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愛女를업고 孕婦가投江

세상떠은딸을등에업은채 애배부녀가몸을던저자살

安州淸川江의慘劇

지난십이일오전여섯시반경에평남안주군연호면내상리(平南安州郡燕湖面內 里)리국대(李國大)의 당남 동숙(東淑)의안해김정녀(金貞女)( )는우물에 물길너나갓다가 어수로 피못는 비를마지가며청천강(淸川江)가에나가서 새살먹이딸을 등에업고배人속에아히배지삼가사이나된몸으로 시어든시한거래를 비서못코그만청천강창파속에몸을던저 귀중한세생명을 한사번에 읏어버렷다는데전긔김정녀의집에서는 물길너나간 김정녀가사오시간이되도록도라오지안음으로 수상히녀며 사방으로차즌결과동군동면북홍리신포천(北興里新浦川)어구에 밀려간김정녀의시데를차고그가등에업엇든어린딸의시데는 아직 차지못하엿다는바이소식을들은룡흥주재소(龍興駐在所)에서는대우보안주임(保安主任)과의생김병성(金炳)씨가현장에출장하야검사를맛치고 방금사실내용을조사하는중이바그의가산이원이오 아서아지미상하다더라(안주)

少年人의生活

[illegible] 청년회수년부주의 여러방면으로[illegible] 용하야주양[illegible] 청년회수년부(中央基督敎靑年會少年部)주최로나유과가치수년의시반생활(少年人[生活])을[illegible] 완[illegible]이라는데 경성[illegible] 는 지원자 [illegible] 방차[illegible] 더바생활을 원하는 수년은 [illegible] 이십구일까지 [illegible] 에신청하기 바라더라

會期 八月一日부터八月八日까지

會費 [illegible]

順序 [illegible]

長野縣在住同胞 日人工夫와亂鬪

조선인과일인사십명이란투

重輕傷者二十餘名

일본장야현에서는[illegible]사이에 [illegible]동시에이십여명이부산(長野縣少縣郡[illegible])[illegible] 동북[illegible]차쟝사상(東北[illegible])사[illegible] 중[illegible] 상[illegible]하엿나 [illegible]에서 일하든조선인이부상[illegible](上田[illegible])에서 일본인이부사십명이지난십삼일오후여섯시반경에서로쟁론을하고 부상사[illegible] 이르기여 공사하는 [illegible]속에서[illegible] 수군모가든것을 [illegible] 쏘는쇠로 [illegible]으며 자흥[illegible]시기하야 엄상할[illegible](상아년보)

仁旺青年委員會

시내 [illegible] 인왕[illegible]청년회(仁旺青年會)에서는지난십이일오후아홉시부터집행위원회를열고 여러가지 사항을결의하고위원도보선하엿더라

◇決議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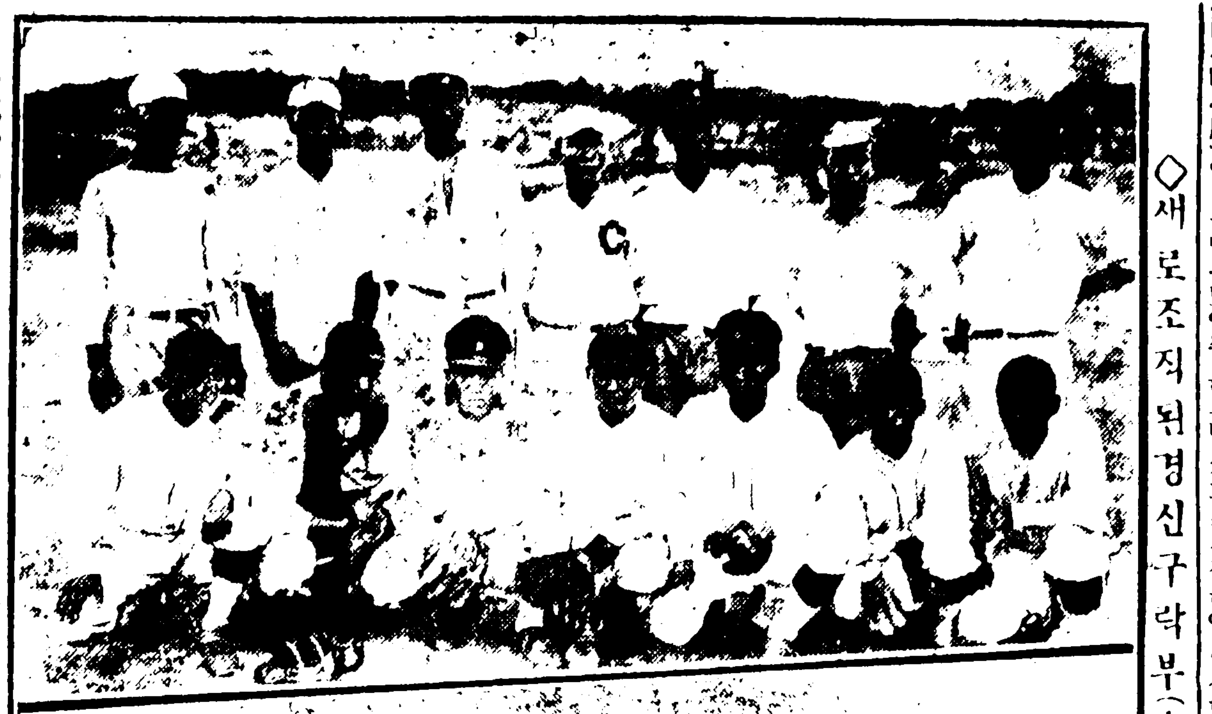
一、執行委員補選에關한件

一、執行委員辭任에關한件

一、月例[illegible]年紀念式擧行에關한件

◇補選委員

常務執行委員長李泰根執行委員張本晶、金[illegible]、孫在敏



◇새로조직된경신구락부(上)와중앙구락부(下)

세상을등지고어데로……?

寡婦의獨子溺死

목욕하다가물에싸저죽어

경긔도진위군서면노양리(京畿道振威郡西面老陽里)림배산실림호순(林好順)씨의외아들김백호(金白虎)는지난십일에동리아이들과함께그압계양(桂陽)개천에서 목욕을하려갓다가 깁흔물에빠지어마무참히싸지어죽어다는데바로회(朴桃花)라는과부의 독자로 그가치참혹히죽엇슴으로 그의모친은 그만긔절하야어찌홀줄모르다가 가치죽는다고물에싸지려는것을 동리사람들이구조하야 겨우생명에는관계가업스나 시테를붓들고애통하는참아볼수업섯다더라(평택)

仁旺山에縊死

영내 가에 자살 [illegible] 시내[illegible]상동(樓上洞)[illegible] 지난 십일오후세시경에[illegible] 인왕산(仁旺山)송림속에서 목을매여죽은것을 [illegible] 발견하고 [illegible] 경찰에 [illegible]

醉中溺死

평남중화군중화면락연리(平南中和郡中和面樂[illegible]) [illegible] 술에취하야[illegible] 물에빠저죽엇다[illegible]

南山에靑年屍

소나무에목매죽어

남산(南山)우소나무가에 목을매고죽은삼십세가량되는 청년의시데 한개를 [illegible] 떠나 [illegible]

안진뱅이投江

어제[illegible]조로오사[illegible] 지난십이일오후여섯시경에한강 인도교에서 어떠한 앉은뱅이가 [illegible] 떨어지려하나 [illegible]

漢江서漁夫溺死

지난십사일오후한시경에고양군연희면아현리(高陽郡延禧面阿峴里)[illegible] 한강(漢江)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illegible] 배를[illegible] 물에빠저죽엇다더라

精神病者縊死

충남당진군(忠南唐津郡)[illegible]

八十老翁이投江

늙은몸에세상을비관하고……

지난[illegible]사일 오전열한시경 [illegible] 한강 [illegible] 팔십[illegible]로인이 [illegible] 세상을비관하야 [illegible] 한강에 빠저 죽엇다더라

路上에서急死

폐병환자가

[illegible]

千餘電燈爆發

일본찰황에서이러난사실

십사일오후에시 반경에 일본찰황쳔방면(札幌旭川方面)에큰비가왓스며 동시에 사옥[illegible] 냥부근에 벼락이떠러젓다는데 맛츰쳔시가에 면등불이 켜지자 수천개의면구(電球)가일시에폭발되며 큰소동을 이르키는동시에[illegible] 어떠한 [illegible]도 일시불통되고교통에도 큰지장이생겻다더라

許時模公判

二十六七日頃

[illegible] 허시모(許時模)(?)의공판은오는이십칠일경에 열니리라 하며재판장은[illegible]관사라하며립회검사는하촌(下村)검사이라더라(평양)

現役軍二名 脫營後强盜질

군부가괴롭다고강도질을해

지난십사일오전한시경에일본정강현부사군천범촌(靜岡縣富士郡傳法村)원등국태랑(遠藤國太郞)[illegible]부대(富士[illegible]部隊)에서 군복을입은 두명의강도가드러가 집안사람을 협박하고 현금사원을 강탈하고 [illegible]다라난후에 [illegible]아 라더라

飮酒하다殺人

술먹고싸우다사람을죽여

지난십이일 밤오에 충남공주군(公州郡鷄龍面[illegible])[illegible] 계룡면[illegible]리류긔덕(柳[illegible])[illegible] 오치주(吳致[illegible])[illegible] 두명에게구타를당하야 [illegible] 오치주 오징숙은 [illegible] 공주 경찰서에[illegible] 무수히 [illegible] 시에[illegible] 마침내 [illegible] 도립병원에서 해부[illegible]한결과 [illegible] 판명되엿다는바 [illegible] 사람이 죽게된 원인이 [illegible] 이라더라(공주)

市民有志代表 道當局을訪問

전주고보사건으로

전주고등보통학교 맹휴사건을 해결하기를 위하야 전주유지가시민유지회를열고 여러가지를결의하엿다함은작보하엿거니와 교섭위원림태욱(林[illegible]) [illegible]씨외오씨는 작십오일에 도당국(道當局)을방문하고 또다시학교측에교섭을하엿다더라(전주)

夏期音樂演奏

정측강습원주최로

시내 서대문뎡일뎡목(市內西大門町一丁目)정측강습원(正則講習院)은팔년전에창립된이래 교육사업에 적지안은 공헌을하여오든바 이제와서는 장차 그운영이 곤난(困難)에 빠지게 되엿다는데 이를듯은시내모음[illegible]협회(朝鮮[illegible]協會)에서는 그강습원을유지하게하기위하야 오는이십일오후여덟시부터 시내당[illegible]공회당(公會堂)에서 하긔음악연주회를 개최한다는바 출연할사람은 [illegible] 洪蘭坡 [illegible] 배구자(裵龜子)양등출연하게되리라는데 이외에도 여러가지자미잇는여흥(餘興)이잇스리라더라

新人同盟定總

시외신공덕리(新孔德里)에잇는사상단데인신인동맹(新人同盟)에서는 지난십일일오후두시에그회관에서뎡긔총회를열고 위원개선과결의사항이잇섯다는데다음과갓다더라

▲執行委員=金晋燮、李[illegible]、李[illegible]、[illegible]外六人

▲檢査委員=權吉淳、[illegible]

一、許時模[illegible]行에關한件

一、學務當局의[illegible]한處分에關한件

一、義務金納付及時間[illegible]守宣傳에關한件

一、各部門運動에關한件

一、夏期講座開催의件

에쓰語講習

조선에쓰페란토연구회주최로 에쓰페란토 [illegible] 강습회를 다음과가치 개최하리라더라

期日 七月十七日부터十日間

每日二回 午後五時=七時 午後八時=十時

會場 中央禮拜堂(市內[illegible])

貧民에無料施療

시내청진동(淸進洞)이백십번디 천치의원(天治醫院)의사천진국(千[illegible])씨는개업한이후도읍한환자를위하야 자선거를 하고다니며 진찰을하여주고 가난한환자에게는 무료진찰을하야 준다더라

援後社本催主專延

中等校陸上競技

◇一今年에는九月에開催

申請은九月廿日까지一◇

每年行事로 擧行하는 延禧專門學校主催 東亞日報後援의 全朝鮮中等學校陸上競技大會의 今年第四回大會는前年보다 期日을당어서 九月二十四日(公休日)午前八時四十分부터 滄川里 延專校庭에서擧行하기로되엿는대 이競技는 純全히中等學校對抗競技로朝鮮에는아즉그先例가업는 競技라 運動界에貢獻한바가頗多하엿슴으로 그만한功績이잇스리만큼 今年大會에서發揮될價値는强大할者라하야 想像以上의盛況을呈하리라고一般은期待하는바라고한다 競技種目는大槪前例에依하며一人이五種目以內의競技를兼行할수도잇다고한다 採點法과參加學校의注意事項은아래와가튼바參加希望學校는申請書에各項競技種目과選手姓名과在學年級及年齡을明記하야九月二十日以內로高陽郡延禧面滄川里延專校로通知하면조켓다더라

◇採點法

▲一般競技 一等 點二等三點 三等一點▲리레競走一等五點 二等三點三等一點▲마라손競走(運動場에서麻浦電車終點까지) 一等七點二等五點三等三點四等一點

◇注意事項

一、參加希望學校는別紙申込書各項競技種目下選手氏名其在學年級年齡을明記하야來九月二十日以內에延專校로通知할事

二、各種競技中若干種類를除外하고라도參加함을得함 但一種이라도除外參加함은當該參加學校의不利益에歸함

三、參加選手의費用은一切自擔할事

四、參加選手는本大會規則(競技)에絶對服從할事

五、參加選手는반다시運動衣를着用할事

六、參加選手는반다시大會日午前八時卅分에出場할事

七、最高得點學校에는東亞日報社寄贈優勝旗及延專校優勝盃를授與함 但三年間을連續하야優勝하는學校에게는永久히授與함

◇競技順序

中央俱樂組織

劈頭對儆信野球

5 A 3 儆新勝

中央高普出身者로組織된野球團中央俱樂部는再昨十四日午後에京城運動場에서發會式을擧行하고뒤를니어發會記念으로野球競技를儆新學校와同五時부터開始하엿는대儆新의善戰하야九回까지에五對三으로中央俱樂部敗戰하엿더라

急告

本人의實印角製楕圓形印鍾元二字刻印章을本年七月十日에元西部里途中에서紛失하엿사온바누가拾得하시더래도使用上無效이오니內外國人은一切勿見欺하시압

槐山郡槐山面西部里李鍾元白

▲訂正 本月十三日本報第二千百號三面廣告第四行에(額面金壹千圓也)는(額面金參千圓也)의誤植이기玆에訂正홈

廣告 本人은長男東均의不足無能者로臭主하는意思를受한바同人과는金錢貸借及飮食外一切上等去來를마시오

義州郡古館面西下洞 [illegible]

白金代用指環

金剛石보담百倍以上 暗黑場에서빗나는人工寶石入

●寶石은아모리暗黑한場所라도猛烈한光을反射하는 [illegible] 適品

부라지나와조곰도다른것이업고 絶對變色이업는것을保證함

男子用 金一圓五拾錢

女子用 金一圓五拾錢

總代金引換說明書付

京城金井町二二三 大山商會

洋靴는韓敬善洋靴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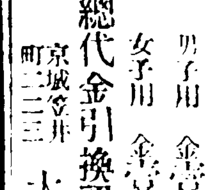
京城鐘路一丁目 電光五七八 振替五〇一八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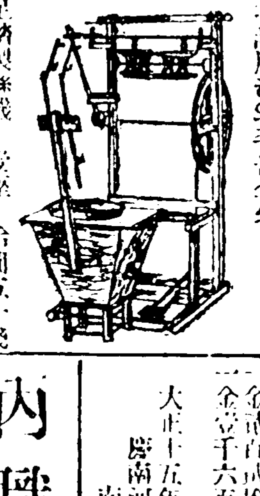
一見에腰折珍品

[illegible]一錢切手封入하야本品을請해보시면天下珍品(裸體)(アイ)

東林社

京城府昭格洞一四六





▲足踏蠶絲製造機大宣傳▼

弊店에서多年研究한결과足踏繰絲機를完全改良製作하야實驗한結果製絲數量은西洋에서高價한機械로製絲하는數量에比하야比無差異하옵니다

弊店은營利만目的으로하는商業機關과달나서製絲界에發達을圖코자하야世界的技巧와精料木材를選擇製作하야貢獻的事業으로된機械이오니實業界諸氏시여一次試用하와주옵소서

足踏製絲機 壹座 拾圓五十錢

附屬品諸般

京城府鍾路六丁目(?) 一八九番地 四圓五拾錢

製絲機製造本舖 合成木工場

電話光一六九八番

內職 材料貸附 收入確實

名古屋男女自宅에서容易히되는 工業見本說明郵券十錢

▲特約代理店募集希望者

東京本鄕元町二ノ六 足立商店 編絲部

第七期決算報告

貸借對照表

資産		負債	
未拂込資金	[illegible]	資本金	[illegible]
銀行預金	[illegible]	法定積立金	[illegible]
郵便貯金	[illegible]	別途積立金	[illegible]
信用保證	[illegible]	缺損補塡準備金	[illegible]
擔保付貸付金	[illegible]	未拂配當金	[illegible]
受取手形	[illegible]	役員賞與金	[illegible]
商品	[illegible]	支拂手形	[illegible]
米穀	[illegible]	職員身元保證金	[illegible]
掛賣金	[illegible]	假受入金	[illegible]
委托販賣前渡金	[illegible]	未經過收入利息	[illegible]
地所及建物	[illegible]	前期繰越金	[illegible]
什器	[illegible]	當期純益金	[illegible]
機械	[illegible]		
假出金	[illegible]		
未收入利息	[illegible]		
未經過支拂利息	[illegible]		
現金有高	[illegible]		
合計	[illegible]	合計	[illegible]

利益金處分

一金[illegible] 當期益金

一金貳百四拾圓也 法定積立金

一金[illegible]百圓也 別途積立金

一金[illegible]千圓也 缺損補塡準備金

一金參千圓也 株主配當金(一株五十錢式)

一金貳百貳拾八圓也 役員賞與金

一金壹千六百六拾參圓五拾錢 後期繰越

大正十五年七月十日

慶南河東邑內

南一物產株式會社

朝鮮唯一 教育研究 教育雜誌

—卒業生送別紀念撮影—

評論

自治와訓練……崔瑨淳

教育者의修養……吳鳳彬

人格教育에對한片察……金昌雲

岐路에선朝鮮教育……鄭烈模

研究

數學教授原理에對한考察……朱基瑞

地理教育에對하야……李軒求

理科教授에對하야……金熙完

英語教授에對하야……趙憲泳

學說

루-소의教育思想……金石香

에미-ㄹ에表現된性教育……朴最吉

페스타로치의生涯와그의學說……趙東式

福童의歎息……曉鍾

‖其他消息會員名簿‖

定價 [illegible]錢 郵料二錢

發行所 在日本朝鮮教育研究會 東京市小石川區[illegible]町一一五 [illegible]方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堅志洞(振替京城七六六六)

서울안에서本報를購讀하시랴면……

京城府堅志洞

東亞日報京城販賣部로

電話光化門七三〇番

登錄 商標

西京 고무

平壤

本邦고무工業의一大革新

江湖고무靴商諸賢에

敬啓者今般弊社에서巨資를投하야大規模의新式機械와工場을新築設備中이더니今에一切의準備를完成하고專門의學者技術家를招聘하여精緻한學理技術下에드듸여品質優良、堅固無比、價格等諸點에잇서서他에類例가업는各種고무靴를大量生產하오니만히愛護하여주시옵소서

平壤府南門通二丁目

西京고무工業社

總販賣部

振替京城一五四六二番

電話 工場部 九八八番 販賣部 七八八番

工場平壤府柳町七九番地

튼튼하고、모양고운、서경고무신、일년이상은넉넉히신는답니다、뉘시든지한번만시험해보시옵

仁取重役會

兩取合倂의見解區區

勸信交涉의顚末告報 河野氏合倂中止提案

再昨十四日午後二時부터仁川米豆取引所樓上에서仁取重役會가열리엇는데其席上에서는根本으로부터其論據를달리하는兩取合倂에對한意見이區區하엿고 또仁川市民의反對運動이漸次激烈하야가는今日에잇서서 仁取重役會의態度如何에對하야는一般이非常히注目하던터이라 이에其重役會에서는京城側重役의出席도잇서 勸信交涉의顚末을報告하고 合倂問題에對한意見을交換하엿는데 河野氏로부터合倂中止의提案이잇섯다더라

出席

하엿는데出席치아니한重役도만하엿스며 京取로부터는大株主三氏가出席하엿고 仁川重役으로부터는河野秋谷大木三氏가出席하엿다더라

仁取紛糾

重役選任이問題

京仁兩取引所의合倂中止는要컨대時期問題이엇스나財界變動의責任은果然何人이負할가함에對하야興論은漸次擴大되는바財界에六十萬圓의影響을與한以外에此問題發展된今日에 一割乃至一割五分을配當하든仁取는今後收拾지못할紛糾를豫想하는바卽若松社長이辭任하고關係하야現重役이總辭職하기後任을總督府에서選出할지라도

後任

仁取의役員後任에關하야는仁川有力者에서選出하면株主의大半은合倂에贊成이아니든京城側大株主가沈默할것이아니요 京城側에서選任하면仁川側이沈默치아니할것임으로結局後任重役問題는紛糾化할것이라는데此는本地에波瀾을起케하는것이다 合倂問題의提唱者인天日京取社長이仁取合倂을宣言한責任이업다고는 할수업는동시에 各方面에相當한反感을買하고中止聲明에는相當한京取大株主會는波瀾을豫想한다더라

合倂反對委員 上京陳情

仁川合倂反對委員은前日市民大會決議에依하야四十八名委員이總出動하야十五日午前十時仁川驛發列車로上京하야朝鮮總督府內務局長殖産局長을面會하고京仁取合倂反對의陳情을하엿다더라

綿絲布運賃減

實現不能?

最近開催된全朝鮮綿絲布商大會에서提議된運賃割引及保管料金低減問題에對하야鐵道局에서는慎重調査한結果現在局綿布와絲는同一運賃으로綿絲가五〇哩以上五〇哩以上四割、百哩以上三割四分、綿布는五〇哩以下二割、五〇哩以上二割四分、百哩以上三割、百哩以上四割으로되어잇스나假使大阪京城間의運賃을見하면百斤에對한綿絲는釜山까지五十四錢計一圓二十錢京城까지五十四錢計一圓二十錢綿布도七十八錢에六十一錢計一圓三十九錢이된다고

局線

의運賃은釜山、京城間綿絲十八錢、綿布一圓二錢으로其差額을割引하야前記와如히相互間運賃과同樣으로하야는

朝鮮移入稅는

明年度부터撤廢

草間財務局長談

草間財務局長은十一日朝入港의連絡船으로釜山에上陸하야宮崎釜山稅關長과同車로上京하야視察하고는九時十分發特急으로京城에向하엿는데車中談은아래와갓더라 (釜山電)

時機

總督府稅制整理는目下調査硏究中인바朝鮮移入稅의撤廢는明年度부터斷行하기로되엿다 日本과同樣으로이는實로日本米가相異한關係上容易치아니하고且日本米의輸移入을自由롭게할것이며 米穀의輸送費、食料費等을考慮한結果京大阪에서施行하는바이다 米穀은一層注意를要하는데本年度內地稅改正에附하야實施될것이요 또日本米가朝鮮에移入하게되면其他에影響이업슬것이라한다

朝鮮內 酒와織物

昨年生産高

總督府稅務課에서調査한昨年中朝鮮內의織物及酒의生産高는織物五百四萬八千餘反價格一千一百二十五萬八千餘圓、綿布五百四萬八千餘反價格七百二十一萬二千餘圓、其他四十八萬餘反價格百九十八萬餘圓이오 酒類는藥酒、濁酒、燒酒等合計一百二十二萬七千餘石、價格八千六百餘萬圓에達하엿다더라

鮮內豆粕車扱

割引不成立

朝鮮線豆粕運賃의割引을要望하야오든東拓及新義州方面에서는此에對하야鐵道局에서는目下考慮中이라는데鮮內의豆粕은大部分이滿洲産인바이에對하야京城小賣商이反對하엿스나 이것을除한外他物에는影響이업다하야割引은不成立에歸하엿다더라

十二年	三六、〇〇〇	
十三年	四五、〇〇〇	
十四年	九九、〇〇〇	

本年은米價關係와小麥作이不良하야多量의移出을보지못할것이라는바日本側에서外米及小麥의相當多量을輸入하기로하고朝鮮小麥에對한需要는前年數量을達치못할뿐아니라今後海外가一般下落하야製粉市場에서는四圓五十錢以上을持續하면移出은意外增加하리라더라

今年實收

一百萬石?

朝鮮小麥은이미一週間前부터出廻되엇는바其後에京釜沿線을視察한結果에依하면京城以北은不作을唱하나平北地方은昨年보다品質이向上하고京城以南은其他에比하야多少減收는免치못할것이라는바結局一割減으로昨年收穫二百十七萬九千餘石에對하야本年實收는二百萬石假量이되리라더라

政府變質米

拂下準備 十一萬石

農林省은前議會의承認을得하야米穀法改正에依하야米價調節을圖하는데今般農民의經濟生活을威脅하는것을避하기爲하야政府所有米의가장影響이적은時期를擇하기로하야一部를變質米及其他를拂下하기로하야十一萬石을拂下準備中이라더라

日本在米

昨年보담減少?

不遠에發表할七月一日現在의日本在米는最近에調査한數字에依하면昨年同期보다減少說이濃厚하엿다더라 (東京電)

爲替受拂高

受入超過激減

京城商業會議所에서調査한六月中府內組合銀行爲替受拂高는受入二萬五千餘圓、拂出二萬二千餘圓으로受入超過二千四百八十一萬圓이니二百二十萬圓이受入超過로前年同期에比하면激減하엿다더라

朝鮮小麥移出

今年度는稍減?

朝鮮內小麥의日本移出은大正九年으로부터始作되엿는데年年增加하야大正十年에는比較的順調이엿스며十四年度에는日本에二十八萬石을移出하엿스며其後에도需要는相當하엿스나本年度는不作으로因하야移出이稍減되리라는바

今日天氣

國境方面에는雨 其他는陰曇할듯

◇槪況 支那에出現한低氣壓은北京으로부터黃海及渤海方面에進行하야高氣壓은日本南方海上에잇는바南方面은降雨하야朝鮮의西部及京城方面은降雨가잇고其他는曇天으로잇슬듯

◇豫想 北支那方面의低氣壓은北東으로進行하야滿洲方面을掩襲함으로朝鮮에는西鮮及國境方面에風雨가잇고南鮮方面은曇天으로經過할듯하다

◇警報 風雨가强하리라木浦南北各道沿岸及內陸을警戒함 南風이强하리라黃海京畿忠南各道沿岸을繼續警戒함 (十五日觀測所發表)

倦怠氣分이

滿滿한場面

期米의人氣가沈滯한으로步調가조금만軟化하면買物은觀望하는現象이나一般이警戒하야手를내지아니하고또年事의念慮하는强派도其數不少하야出動할가도불可不少하게되는고로手控하는바가多大하야人氣는倦怠氣分이滿滿하다

期米

前場保勢

(十五日仁川)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三七.三〇	三七.八二
二節	—	—	三七.九〇
三節	—	—	三七.八〇
四節	—	—	三七.八二
五節	—	—	三七.八六
六節	—	—	三七.八六
七節	—	—	三七.八七
八節	—	—	三七.八九
九節	—	—	三七.八五
十節	—	—	三七.八五
前日前止	—	—	三七.九九

前後場三十七圓七十八錢에强硬히止하엿는데今朝阪地初付가四十一錢高로初付하야買氣더욱刺戟되야三十七圓八十一錢에三十二錢高로初付한後大阪地二三節七十一錢小弛와共히七十九錢에軟化하다가다시八十錢에反强하는際에大買物이나타나서是는軟化할듯하엿스나困라

後場稍軟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	三七.八〇
二節	—	—	三七.八〇
三節	—	—	三七.八〇
四節	—	—	三七.八〇
五節	—	—	三七.八〇
六節	—	—	三七.八〇
七節	—	—	三七.八〇
前日後止	—	—	三七.八〇

取組高 (單位石) 當 三〇〇 中 一〇、〇〇〇 先 二八、二〇〇
帳入價格 當 — 中 [illegible] 先 [illegible]
賣買高 當 — 中 [illegible] 外 [illegible]
合計
本朝總數

外場面에서는手控하는바가잇서八十錢에强化하엿스며全部買物을招하엿고大阪地가一向七十二三錢에서는依然細刻함으로賣買가漸漸稀薄하야人氣는低迷하야다시七十九錢에止하고散漫한商況으로다

步調不透明

當地로말하면月初高價三十八圓四十九錢에서六圓九十五錢까지百五十丁의呼吸低落을示하엿스나阪地로말하면五錢以來四十圓十錢의新高價를示現한後十個月間에引取的으로不安하게하엿스나設合將來에一段高價를보여의미한다

米豆餘墨

◇…京仁取合倂反對運動이激烈한此際이라昨日仁取重役會는頗히一般의注目을끌든것인대重役도全部出席치아니하엿슴으로協議會形式으로勸信交涉顚末報告에不過하엿다고

◇…그리하나重役의一人인河野竹之助氏로부터合倂中止의提議가有하엿스나重役이全部出席치아니하엿다하야번번히議題도아니하고말엇다지

◇…問題는今日中에到着할勸信의回答如何에잇는貌樣인데勸信으로말할지라도일이존재에關係됨으로回答이單純치못하리라고

◇…今日仁川市民側에서合倂反對委員前後四十名이總出動하야反對陳情次로總督府에向하엿다하니總督府가騷亂하겟는걸

◇…合倂成否는仁川市民의死活問題인同時에京仁取重役諸公도死活問題이니다彼此에죽자고하나하라고하기는一般이나畢竟은少數의便이犧牲되겟지

作況으로는將次靑田의氣分이擡頭한다며其現實을無視할만한것이잇슬것갓지아니한데一面正米의動靜을보면集散市場의在米는漸漸減退될터이요植付終了後에一層放出할것으로期待하든農家의持米도一向市場에出廻되는傾向도보이지아니하고또한四五月부터臺灣米의入來할것을두려하든것인대實際에는綿織移入이있을期待가富하엿는데何等威脅이잇슴을認定할수업스니이것은要컨대米界의市價를威脅하는程度에이르지못하엿고其高價에조혼商勢가强하야人氣가依然하고買勢力이依然히當分間의新高價를保持할것이라는바로其人氣는不伸이고商勢는引續하야市場에서는現實萬能化하야서다

畢竟現實萬能

正米의高騰한事情이一應時勢上에나타낫슴으로앗가저强한人氣도最高强이라고이러튼人氣도寂息되야누구나青田氣分의一落을期待하는貌樣이나日本朝鮮의時勢가저만한高價를持續한다한바賣買兩方의策動이强하야突發的으로이러한動機가잇서前에는當分保合의商狀을反覆할듯하다

도머리를숙이기始作하엿고此際에約百丁低押은亦是적을것이나强派로서도無理히買進치못하는貌樣인데軟派는또한暗中에는곳을다차지하야當分間保合으로一向不透明한步調를持續한

仁川正米標準時勢

㊀三等合格米	一石	三六.五〇
㊁四等合格米	一石	三六.〇〇
無檢查地方米	一石	三五.〇〇
一等精白米	一石	四〇.〇〇
正租 改良種	一斤	[illegible]
在來種	一斤	[illegible]

大阪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節	三九.八〇	三九.九八	四〇.二〇
二節	三九.八〇	三九.八〇	四〇.一二
三節	三九.八〇	三九.九〇	四〇.〇二
四節	四〇.〇〇	四〇.〇六	四〇.〇二
五節	三九.九〇	三九.九八	四〇.〇二
六節	三九.九〇	三九.九八	四〇.〇二
七節	三九.八二	三九.八六	四〇.〇二
八節	三九.八〇	三九.八六	四〇.〇二
九節	三九.九〇	三九.九〇	四〇.〇二
十節	三九.九〇	三九.九〇	四〇.〇二
後場一節	三九.八〇	三九.八〇	三九.九二
二節	三九.七〇	三九.八〇	三九.九二
三節	三九.七〇	三九.八〇	三九.八二
四節	三九.七〇	三九.八〇	三九.八二
五節	三九.七〇	三九.八〇	三九.八二
六節	三九.八八	三九.九二	三九.一〇

東京期米

◇先限 三十九圓三十九錢

後場止跡氣配

前場		後場	
一節	四〇.〇九	一節	四〇.三八
二節	四〇.一五	二節	四〇.三五
三節	四〇.二五	三節	四〇.一二
四節	四〇.二〇	四節	四〇.二三
五節	四〇.四五	五節	四〇.二六
六節	四〇.四〇	六節	四〇.二〇
七節	四〇.三〇	七節	四〇.〇九
八節	四〇.二〇		

兵庫期米

	付價	止價
前場	三九.三〇	三九.五五
後場	三九.五〇	三九.三四

下關期米

	付價	止價
前場	三八.三四	三八.三四
後場	三八.四八	—

桑名期米

	付價	止價
前場	三八.二三	三八.一三
後場	三八.三三	三九.二五

各地期米高低

	前日止價	今日前付	比較
仁川	三七.七七	三七.八二	一 高
大阪	三九.九九	三九.九二	一 低
東京	四〇.〇九	四〇.四〇	一 高
兵庫	三九.五六	三九.五六	一 低
下關	三八.三五	三八.三五	一 低
桑名	三八.一〇	三八.三〇	一 高

各地穀物

釜山 賣買高 一、五〇〇石

	七月末	八月中	九月末
前場 穀良	三六.三〇	神力	三六.三〇
一節	—	—	三六.八二
二節	—	—	三六.八二
三節	—	—	三六.八二
四節	—	—	三六.八二
五節	—	—	三六.八二
六節	—	—	三六.八二
七節	—	—	三六.八二

大邱 賣買高 一〇、五〇〇石

	七月末	八月中	八月末
前場 穀良	三六.〇〇	神力	三六.一〇
一節	—	三六.一〇	三六.一〇
二節	—	—	三六.二〇
三節	—	—	三六.三〇
四節	—	—	三六.二〇
五節	—	—	三六.〇〇
六節	—	—	三六.一〇
後場一節	—	—	三六.五〇
二節	—	—	三六.五〇
三節	—	—	三六.五〇
四節	—	—	三六.五〇
五節	—	—	三六.五〇

群山 賣買高 一八、五〇〇石 (全羅三等米 四等米 同)

	七月末	八月中	八月末
前場一節	—	三七.一五	三七.二五
二節	—	三七.一八	三七.二〇
三節	—	—	三七.二二
四節	—	—	三七.二五
後場一節	—	—	三七.三〇
二節	—	—	三七.三〇
三節	—	—	三七.三〇
四節	—	—	三七.三〇

株式

前場稍硬

(十五日京取)

▲京取十錢高 ▲鐘新七十錢高 ▲大新十錢高

夏枯와寂寥商狀

大新은百十四圓二十錢付價後로五十錢高를示한後一、二十錢의保勢의買人氣이엿스나引際九圓臺로下押하야八十錢大引이엿스며鐘新은在際賣物이업서百五十四圓四十錢付價後賣買가업시閑散場面이엿스며化味가잇섯고京取는三十圓八十錢步調로引際綿絲低를傳하엿다

新市待場面

今後分岐?

今朝大新은阪付十圓臺乘의百十圓五十錢입을보고當地도百十圓二十錢付價를示하엿스나阪地가다시十圓臺割로百九圓保勢임을作하야當地도引際에百十圓臺割이엿스며仕手株가甚하야商狀은買로淋寥를呈하엿다而東新은百八十圓臺割後細軟味裡彷徨임을따라大新도仲氣不振하고다만新市待를風情이바야下强弱觀을보면아래와갓다

强氣觀 金融背景으로買買가不少하고純育株의活況으로突込하야深押은期키難하다

軟氣觀 그새硬派의防戰的으로보賣勢한王數間無理買王으로아즉도賣便이만흔關係上此邊保勢의分岐는下押이될듯하다

穩健觀 萬若保勢下押의市勢가演出될진대此邊은相當히買根據가잇다고볼수잇다그러나此로外悲觀할것은아니나楚컨대低價追擊賣는警戒하는空氣가依然潜在한商情이다

京取成行傍觀

京取는合倂成行如何를따라人氣가多少方向되는傾向이다그러나特히大新顔頭과仕手枯로市勢가容易히上伸할수업슬것이니今日勸信總會에서移管成否가決定될것임으로此에作하는一市勢라하는바强氣觀은오래동안保勢를示하엿슴으로는分岐하는傾向이며合倂이不成立할지라도低價로는술臺할것이다一面合倂이不成立할지라도低價는아니라고

後場寞寂

益益薄商內

▲京取十錢高▲大新五十錢低

前場諸株步調

◇京取 三〇.六〇
◇鐘新 一五四.四〇
◇大新 一一〇.二〇—一〇.五〇—一〇
◇仁新 一一五.二〇

後場諸株步調

◇仁新 一一五.二〇
◇京取 三〇.七〇
◇大新 一〇九.九〇—一〇九.八〇

成立할때는好氣投物이出現할念이잇고目下의市場不振임으로二十八圓以上保勢는甚難하關係上可暇의市勢는期待할수업다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場	後場
京取	三〇.六〇	三〇.七〇
國新	一五〇.四〇	—
大新	一一〇.三〇 一〇九.八〇	一〇九.八〇 一〇九.八〇
仁新	一一五.二〇	—

短期賣買成立高

合計	七九一、二八一〇〇枚
累計	七九二、三八〇〇枚

大阪短期取引

株名	前場 付價	前場 止價	後場 止價
大新	一一〇.五〇	一〇九.八〇	一〇九.八〇
鐘新	一五四.七〇	一五四.〇〇	一五三.八〇
久原	六六.六〇	六六.六〇	六六.六〇
東新	一七七.六〇	一七八.六〇	一七七.八〇

大阪三品

	前場 付價	止價	後場 止價
七月	二五七.〇〇	二五七.八〇	二五八.七〇
八月	二五八.五〇	二五九.〇〇	二五八.三〇
九月	二五九.二〇	二五九.三〇	二六〇.〇〇
十月	二六〇.〇〇	二六〇.八〇	二六〇.〇〇
十一月	二五九.八〇	二六〇.三〇	二五九.三〇
十二月	二五七.四〇	二五九.三〇	二五九.五〇
一月	二五八.一〇	二五八.二〇	二六〇.〇〇

橫濱生絲

當限 一、六五三 先限 一、六〇二 前場 現物武州格

京城綿絲布

▲粗布(鐵木)

三	星	三六.〇〇	不老草 三六.〇〇
大極星	三六.〇〇	山 蔘	三六.〇〇
三神山	三六.〇〇	天 桃	一三六.〇〇
三 A	三六.〇〇	大 A	二六.〇〇
金剛山	三六.〇〇	九牡丹	
金 閣	三六.〇〇	煙 管	三五.〇〇
雙 鶴	三六.〇〇	貴 童	三三.〇〇

▲細布(洋木)

飛犬13	三二.一〇	鶴	三三.一〇

▲洒金巾(玉洋木)

進 軍	三二.〇〇	金 鼎	三三.二〇

▲綿絲

扇面16	三九.〇〇	雙 女	三〇.〇〇

▲晒木綿(광목)

晒木綿	.九六	椿	一.〇六

京城手形交換

枚數	三.三五五枚
金額	一、七七七.六〇八圓

朝鮮銀行券 十四日

發行高	六九.九一七.四九七圓
正貨準備	三三.七九五.六四〇.〇〇
保證準備	四六.一二九.八五〇.〇〇

日本金利 十四日

	東京	大阪
無條件	一.六五	一.六〇
翌日物	一.五五	一.六〇
月越物	一.八五	一.九五
六十日	一.九五	一.九〇
普通割引步合	一.七五	一.七〇

(一錢單位)

對外爲替 十五日着

對英	一志一片八分一
對米	四六弗八分七
上海	六二兩

(朝鮮銀行建價)

海外經濟 十五日着

倫敦銀塊	三〇片八分一
紐育銀塊	六五仙二分一
米綿	不變
印綿	三十錢高
英米爲替	四弗八六仙六分七
스털링	一四二弗二分一
아나콘다	四九弗

麻衣太子

【六八】 春園 作 丹谷 畫

풍운 (十八)

『항복하라』하는말도분하거니와 랑길의태연하게 웃는태도가 더욱 귀헌의분통에 불을질럿다 귀헌도 잠시 말을세우고 『요놈! 좀人도적놈! 겁이나거던 항복하라 이번에는바로네 살려줌을 션흐리라』 하고 소리를 웅숭히 질렀다 우슴 때에 귀헌의 너슬너슬한 수염이 움지기고 웅숙 들어간눈에서는 불빗이낫다 한바탕 웃고나니 귀헌은새긔운이 남을세닷고 이번에야말로 며번에 조마귀만한랑길을칼끗헤반쌈쇠어듀듯하엿다 『내너를어엿비여져 살길을주엇는데 고마운줄을모르고 며드니 진실로어리석은놈이로다 그릴진댄 네내칼의드는맛을보라』 하고 이번에는랑길이 먼저귀헌을엄습하엿다 이번에는 랑길은 귀헌의칼을 피하려하지아니하고 도로혀 귀헌을엄습하엿다 랑길은 마치몸에 날개가잇서 나는드시 귀헌을 싸고돌아 보이는것이 오즉랑길 뿐이오 귀헌은간곳이 업는듯하엿다 귀헌은자긔가 랑길의칼빗헤싸힌것을볼때에 무서움과 분함으로 인몸에힘이 모다 일어낫다 그래서잇는힘을다하야 눈을 부릅뜨고 칼을 휘둘럿다 압헤랑길의 그림자가 번뜻할 때에 바람을 버히기만하엿고 오즉바람은 이러하기를 멧번하엿건마는 랑길의몸은 마치바람으로된듯하야 귀헌의 칼날에 바치지아니하엿다

귀헌은더욱맘이 초조하야 부르르고 좌충우돌 하엿다 각금 칼과칼이마조치어서 번적번젹불빗을 날리고는 떡하고 버락치는소리가 난다 그러할때마다 두편군사는손에땀을쥐며 자긔의편을 위해소래를 듯고 마츰내 귀헌은자긔의 팔과칼이 자긔의 말을듯지아니함을 깨닷고도 망할 틈을찻다 그러나 사방이모두랑길의칼人빗이 오로자 나싸지어 다라날 틈이 업섯다 귀헌은마즈막으로 힘과 정신을모도와 눈을 억부릅뜨고 귀헌의모양이 압헤번듯하기를 기다렷다 그 번은 그대로 노치고 두 번도 그대로 노치고 세人재 번에 귀헌은 머리우헤 놉히 들엇든칼로 눈압헤 번적지내가는 랑길을 치엇다 그러나칼은 이번에도 바람을 썩고 랑길의 웃는소리와 함께 귀헌의 엽구리에 선뜻하는 감각이 낫다 그러니 귀헌은 정신이 앗득하야 말에서 떨어지고 뷔인말만 처먹머로 벗바쿠를 뛰어돌다가 슬슬 저편으로 소리를 치고 걸어간다

귀헌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귀헌의 군사는 칼과 창과 칼을 집어 던지고 다라나버리고 랑길의 군사는 그것을 따르지도 아니하엿다 귀헌이 땅에 떠러지어 넘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랑길도 말에서 나려 귀헌의 엽흐로 갓가히 걸어갓다 귀헌은 각가스로 몸을 이르켜 안지더니 압헤 섯는 랑길을 보고 『랑길아 재주가 용하다 내가 오늘 싸화 네게지엇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는 입으로 피를 뿜으며 칼을 내어 던지고 다시 넘어진다 랑길도 칼을 칼人집에 도로 꼿고 『모도다 한바탕 꿈일세 자네가 진것도 꿈이오 내가 이긴것도 꿈일세 이제부터 백년 후면 자네나 내나 모든 한 줌 흙이 아닌가 허허허』 하고 웃는다 귀헌의 밤人속에는 돌내人집과 어린것들과 또 자긔를 배반하고 다라난 원희신헌의 모양이 보히어 슬품과 분함이 북바치어 올랏

質疑應答

◇範圍는法律問題……記述은簡明爲主……原稿는楷書로表面에『質疑係』라朱書하심을要……應答은반듯이本欄에發表

【問】 甲男이乙女와十年前에結婚(戶籍上配偶가됨)하여同來同居하다가五年前에甲男이丙女와再婚(戶籍上配偶는아님)하고乙女를不顧하니乙女가甲男又는丙女를重婚으로條件삼아兩方을法律上告訴할수잇슴닛가

【答】 甲男에게對하야는重婚罪로告訴할수잇스나丙女에게對하야는告訴하지못합니다 (辯護士金泰榮氏談)

社告

今般本分局에서業務를一層擴張키爲하야朴乃永君을熙川郡內駐在記者로李日煥金昌河兩君을本局記者로任命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東亞日報 球場分局 白

肥滿劑

胃腸이튼튼하야지고 體重이增加가집거슬

◎肥滿劑는身體를건강케하고 食慾을增進하며 ……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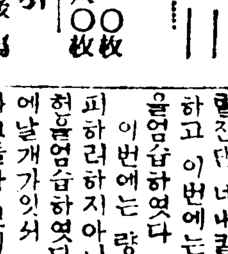
레一번

效力絶大良藥 生殖器衰弱

本劑는醫學博士의推奬 …… 身體衰弱、神經衰弱、腦病、頭痛、不眠、便秘、精力減退、生殖器衰弱等에主效

東京市 …… 大阪 …… 販賣

大好評第五版 男女 生殖器 鮮圖



美人裸體寫眞 東京 …… 東興堂

外科 植村病院

院長醫學博士植村俊二
京城永樂町二丁目
電話本局一七九二

養兎

希望者에게는 …… 京城府 …… 漢城養兎園

ホシ胃腸藥

健康第一 健康은胃腸부터